

본문 : 요한복음 15 장 11-17 절

제목 : 서로 사랑하라

1. 구약성경의 복기록

요한복음 15 장은 매우 의미 심장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뜻을 알기에 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쓰는 언어들이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1500 년의 역사를 간결하게 압축합니다. 요한복음 15 장 1 절에 나오는 참포도나무라는 말은 들포도나무 역사로 단정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불려진 것입니다. 저는 바둑은 모르지만, 바둑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은 압니다. 정석, 포석, 초석, 묘수, 악수, 사활, 미생, 완생 등의 용어들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바둑 용어지요. 바둑 기사들이 대국에서 졌을 때 자신이 왜 졌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을 '복기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끝난 대국을 재현하면서 수순(순서)과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을 복기라 합니다. 미생이란 만화를 보면 프로 기사였던 장그래가 귀하게 간직해 온 노트가 있는데 복기 노트입니다. 장그래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이 잘 안 될 때는 습관처럼 복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500 년간 이어 온 구약성경의 역사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 했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제자 공동체에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세계 만민에게 열두 사도와 같은 자기 내어줌의 삶을 알려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창에 허리가 찢릴 때 물과 피를 쏟아낼 겁니다. 물과 피는 포도주와 거룩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제자들도 거룩한 복음의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초대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에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열방 중의 한 나라가 되는데 만족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만민 회복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팽개치고 혈과 육의 집단으로서의 민족국가로서 남는 것에 만족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룬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다시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신 뜻은 이제 새롭게 나와 열두제자공동체를 통해서 성취 될 것이다, 나와 제자 공동체가 이루는 앞으로의 장엄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아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열 두제자의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복기 노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엉뚱하고도 갑자스럽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기해 봤을 때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계명이 사랑인데 이스라엘이 엉뚱한 계명들만 지키고있다 생각하셨던 거죠.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평과 정의, Mishpat 와 Tzedakah 였습니다. 이 두 열매를 합쳐 놓은 것이 사랑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랑에 기반한 계명들이었죠. 이 계명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적인 계명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며 예언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꼬집었지만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대국들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국가 마저 잃고 말았죠. 예언자마저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 년의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400 년의 암흑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뒤흔때문에 실패했는지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이 모자라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경건하게 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의 '핫시딤'이라는 무리들이 이 때 등장하지요. 그 핫시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고, 에세네파는 아예 광야로 떨어져 나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바리새파는 613 개의 계명을 만들어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메시아가 온다며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명 말고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하고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서로 하나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죄는 등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힘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등돌리고 외면하는 것은 사랑과는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행했던 것들은 사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열매 없는 경건과 거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들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다짜 고짜 “사랑 안해? 사랑하라니까? 너 사랑 안하면 나도 사랑 안 해준다.” 이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요구처럼 들리죠. 13 절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 나는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내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라는 헬라말 “Allelon”은 바울 서신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알레온입니다. Different 라는 뜻의 “Allos”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나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년 내내 해만 뜨면 사막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다른 계절과 다른 날씨와 다른 기후가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ty 는 '함께'라는 뜻의 Com 과 '선물'이라는 뜻의 'munus'가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독일말로 배려는 "Fürsorgen"인데요, für 는 for 라는 뜻이고 sorgen 은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염려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염려해 주는 것이 배려이고, 배려는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4. 친구가 아니라 종으로 불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겠다 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더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단수처럼 나오지만, 친구들이라는 복수형태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시겠다 합니다. 15 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종과 친구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주인과 종의 차이점을 알면 친구와 종의 차이가 분명해 집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종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전체 맥락 안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돌쇠야 건너 마을에 아무개 집에 가서 이것 좀 전해주고 오너라." 라고 종에게 명령을 내릴 때, 종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왜 전해 주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주인이 준 물건을 전해주고만 오면 되는 것이죠. 종은 부분만 압니다. 하지만 주인은 전체를 압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겠다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 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실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만 알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설해 주시면서 그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전체 그림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제야 전체 맥락을 파악한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적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지 못해 다니고, 마지 못해 봉사하고 마지 못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열매를 맺지 못했던 공동체

성경의 큰 이야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핵심적인 알맹이이자 알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이 핵심이며,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아담의 갓빌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수메르어에서 갈비뼈는 생명과 친한 친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말이지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시였습니다.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깊었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잘 못 따먹으면서부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 났는데, 서로 탓하고 서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잘 못 먹은 탓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탓하고 불레임하는 순간 그들의 공동체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맺혀야 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공동체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6. 열매 맺는 공동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사상가는 말합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것이 타락이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바꿔말하면 “주인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이 타락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자신이 품은 씨앗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열매의 재생산성을 두고 한 말일 겁니다. 사랑은 재생산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은 그 사랑을 주지 않고는 못 버팁니다. 자신이 사랑 받을 때 그 행복감을 알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재생산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사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갖는 공동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연습을 소그룹에서 해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재산마저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한 공동체를 향한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 공동체를 향한 꿈마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요일 4:11)”

예수 공동체 안에 젤롯당 출신의 시몬도 있고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과 마태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시몬은 마태를 매국노로 여기고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겠죠. 마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겠죠. 쫓고 쫓기는 관계가 젤롯당과 세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로 인해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일궈냅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일궈낸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쌓아 놓은 엄청난 담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